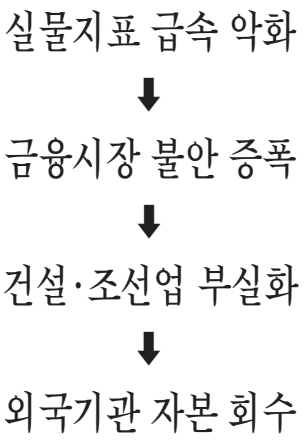


(3월 위기설 시나리오)



내년 초 실물경제가 완전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금융시장 불안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시 '3월 위기설'이 떠돌고 있다.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설·조선·자동차업 등의 부실이 현실화되고 외국 금융기관의 자본회수가 본격화되면서 3월에 우리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

떠도는 '3월 위기설' 근거있다

정부 "루머 불과 ... 가능성 없다" 일축

있다는 시나리오다.

◇'3월 위기설' 근거는 '3월 위기설'은 인터넷 경제는각인 '미네르바'가 신동아 12월호 기고를 통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을 맞이하는 정부의 대응기조가 현재처럼 이어진다면 내년 3월 이전이 파국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부 내에서도 내년 상반기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위기설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걱정거리로, 내년 상반기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특별한 비상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정책을 추진중이지만 언제까지 최악의 상황이 갈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악의 상황이 진행된다는 전제에서 내년도 예산을 짜"고 설명했다.

이런 위기설의 근거는 최근 우리 경제의 실물지표가 급속도로 악화되는데 기반한다. 올해까지 20% 안팎의 증가율을 유지했던 수출이 지난 11월 18.3% 감소한데 이어 내년 상반기 또는 분기별로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 대비 경제성장률은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경기침체의 여파가 건설사와 조선사에 이어 자동차·반도체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고 특히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해 대규모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위기설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도 증폭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월 말이나 내년 3월 말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있어 국내 채권을 일시에 회수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위기 가능성 없다" = 정부는 그러나 '3월 위기설'이 지난번 불거진 '9

월 위기설'과 마찬가지로 근거없는 루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지금도 금융기관들이 3개월 마다 한번씩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없었다"면서 "내년 3월에 일시에 (해외금융기관의 자본이) 다 빠져나간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예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실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나 전 세계적으로 해외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분위기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3월에 급격히 변하거나 갑작스럽게 특정 국가의 투자자금이 회수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저축은행 '부실 털기' 공적자금 1조원 투입

캠코, 164개 사업장 PF대출 매입

저축은행의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매입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89개 저축은행의 899개 PF 대출 사업장 중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164개 사업장을 한때 혹은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이달 중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전체 PF 대출규모는 12조2천억 원이며 매입대상 사업장의 대출규모는 1조3천억 원 수준이다.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5년여 만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올해 9~10월에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사업성이 떨어져 '악화우려'로 분류된 189개 사업장(1조5천억 원, 이하 대출규모) 중 연체중인 121개 사업장(9천억 원)이 우선 매입대상이다. 연체가 없더라도 토지매입이 70% 이상 진행된 43개 악화우려 사업장(4천억 원)도 매입대상으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매입대상 PF 대출규모가 500억 원이던 평균적으로 매입률 70% 적용될 것으로 캠코의 실제 자금투입 규모는 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상반기 실물경기 바닥친다"

경제 관련 연구원장들 전망 ... "재정지출 역할 중요한 시기"

경제 관련 국책연구원장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시화된 금융불안이 내년까지 지속되고 실물경기는 바닥을 치면서 경제가 총체적인 난국을 맞을 것으로 우려했다.

연구원장들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전망하며 정부가 재정지출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한강사이버(이사장 채수찬)가 주관하고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의 원장들이 참석했다.

연구원장들은 글로벌 금융불안이 당분간 지속되고 실물경기는 가파르게 추락하면서 경제 전반이 내년 상반기에 저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국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내년에 크게 해소되기 어렵다"며 "안전자산으로서 미 달러화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면서 고환을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택 KDI 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증가율이 급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 2%대에 그칠지언정 하반기에는 4%대 중반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장들은 경기의 연속락을 유도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재정지출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최근의 경제여건은 국내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서 외환위기 때처럼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정택 원장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다만 재정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해야 하고 계획된 감세는 예정대로 추진돼 항구적인 추가 감세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달청, 내수 경기 활성화 내년 상반기 19조원 푼다

조달청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19조원을 푼다.

조달청은 내년 물자구매, 시설공사 예산 27조5천억 원 가운데 70%인 19조3천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경기 하강국면을 건설업체 및 제조업체 등 중소기업 집중지원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달청은 특히 1·4분기에 총 6조5천억 원(연간 계획의 50%) 규모의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자재 등 단가 하락품목 2조5천억 원 상당을 공급하는 등 10조3천억 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수요기관 대신 납품업체에 지급(청구 후 4시간 이내)한 뒤 수요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납품대금 대지급 규모를 현행 5조5천억 원에서 8조8천억 원으로 늘리고 실제 지급실적

이 저조하던 선금지급을 법정한도인 계약금액의 70%(현행 평균 37.3%)까지 지급토록 했다.

또 조달청과의 계약서만으로 대금의 80%를 대출해주는 네트워킹은행을 현행 3개 시중은행에서 전체 은행으로 확대하고 공공조달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 연간 138억 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상반기 집행률이 10% 증가할 경우 계약대금 지급으로 2조원 상당의 현금이 조기에 시장으로 공급돼 내수경기를 진작시킬 것"이라며 "공공기관과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조기발주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기집행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게임산업 3500억원 투자" 유인촌 문화장관

유인촌 문화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제시했다.

유 장관은 3일 서울 신사동 게임테마 레스토랑 제임스에서 '게임산업진흥 제2차 중장기계획 발표 및 간담회'를 갖고 "게임산업은 2001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 고도 성장하며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2012년까지 세계 3대 게임강국 도약을 목표로 3천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통해 2012년까지 국내 게임산업 시장규모 10조원, 수출규모 36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의 전략적 수출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독립개발 스텐디오를 육성하는 등 선진형 산업구조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외환 보유고 2천억 弗 '위태' 지난해 117억 弗 감소한 2005억 弗

지난달 117억 弗 감소한 2005억 弗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2천억 달러 선으로 급감했다.

한국은행은 3일 11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2천5억1천만 달러로 전월보다 117억 4천만 달러가 줄었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 감소폭을 보였던 10월(-274억2천만 달러)보다는 감소세가 크게 둔화됐지만 10월에 이어 급감세를 이어가면서 2005년 1월의 1천997억 달러 이후로 3년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 18억8천만 달러 증가에서 4월 37억6천만 달러 감소로 돌아선 뒤 5월 -22억8천만 달러와 6월 -1억 달러, 7월 -105억8천만 달러, 8월 -43억2천만 달러, 9월 -35억3천만 달러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韓銀, 은행에 지준금 이자 5천억 지급

은행 여신 여력 확충 지원책

한국은행은 9일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환매조건부(RP) 매매 방식으로 이뤄지는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에 포함기로 했다.

또 은행이 한은에 예치하는 지급준비예금에 대해 약 5천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급준비금 이자 지급으로 4조5천억 원,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확대로 1조7천억 원 등 모두 6조3천억 원

가량 은행의 여신여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3일 오후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은행 여신여력 확충 지원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은은 주택금융공사 채권을 RP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됐으며,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사들이면 은행의 재무건전성과 대출 여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본초팜플라스	약국 영업 및 영업관리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6	062-264-3496
K1Tech	[광주북구]일반행정업무 관리, 자료정리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2/07	031-354-5180
한국생신성분부	[광주]교육기획/행정지원 계약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8	02-724-1039
푸르덴셜생명	푸르덴셜 하반기 대졸 (광주)	대졸/경력2년	5000~6000	12/08	062-224-8388
(주)제일소프트	홈페이지 고객상담 및 업무보조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2/09	062-227-3118
경기합동경동택배(주)	[경동택배]물류관리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0	061-399-2402
(주)유로넷	[연봉2400]SK텔레콤 광주역/서부114 상담원	초대졸/경력무관	2400~2600	12/10	02-780-9595
한국정보보호인식(주)	정보보호 전문교육훈련강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0	062-521-1122
뷰티코리아(주)	기획, 관리, 사무, 무역 경력 간부사원	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12/10	062-384-9688
호성이크릴	광고재료 전문점 / 이크릴 재단, 가공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1	062-525-6656
(주)금정	세차장근무 (전자동) 관리남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1	062-955-7501
헤어캣또	네일살롱염 및 직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2/12	062-232-3774
(주)태담건설	건축/기계설비 기능직(반직)/포크레인기사	고졸/경력3년	2400~2600	12/12	062-574-9401

(광주잡코리아 012-6210 제공)

"車 싸게 팝니다"

업계, 소비자 지갑 열기 판촉경쟁

기아차 모델별 최고 200만원 할인

국내 완성차 및 수입차 업체들이 경기 침체로 자동차 구매를 꺼리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각종 할인조건을 내세우며 연말 판촉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구매가 줄고 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판매 진작을 위해 이달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베라크루즈는 200만원, 싼타페는 180만원씩 할인을 주고 있다.

또, 쏘나타 트랜스폼은 80만원, 그랜저는 120만원, 제네시스는 200만원까지 값을 깎아준다. 판매조건도 내걸었다.

기아차는 모하비와 오퍼러스를 구입하면 유류비 지원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모델별로 40만~200만원 정도를 싸게 파는 행사를 벌이면서 이달 출고 고객들에게 10만~15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도 주고 있다.

르노삼성은 현금 및 정상품으로 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유류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쌍용차의 경우, 렉스턴과 카이런, 엑티언을 사면 ▲유류비 지원 ▲3.9%, 36개월 혹은 7.9%, 48개월 차량 가격 전액 할부 ▲선수율 30% 이상 납부 시 무이자 36개월 할부 등의 혜택 중에서 한가지를 택하는 판매조건을 내걸었다.

BMW코리아는 이달 비즈니스 세단인 BMW 5시리즈를 사는 고객에게 6개월간 리스를 지원해주는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6천750만원인 528i의 경우 선납금 30%, 30개월간 월 61만343원을 납부하고 3년 후 상환 유예금 60%를 지급하면 차량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도 금융 전문 회사인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와 함께 특별 금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달 말까지 전국 벤츠 전시장에서 차량을 구입해 신규 등록하면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누릴 수 있다.